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직 수용소 경비병, 정의 실현을 향한 여정을 위해 목소리를 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용소 경비병 출신인 안명철씨는 해당국 내 정치범 수용소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안명철씨는 대한민국에 비정부기구 엔케이워치를 설립하여, 동료들과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온 이들 수 백명의 고통을 기록하며 피해자와

가족을 대신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엔케이워치는 최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정보저장소에 보관이 가능하도록 진정서 768 건을 제공했습니다. 해당 저장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관련 증거와 정보를 보존하고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유엔은 방대한 분량의 다양한 정보를 단일화된 정보저장소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책임규명을 도모하고 진실을 알리며 역사적 기록물을 마련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인터뷰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부모님 두 분 모두 북측 당국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정권에 충성하는 가족이었고, 이런 배경 덕분에 1987년 정치범 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통제구역을 담당하는 경비병이었습니다. 완전통제구역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정치범은 반역자이고 적일뿐 인간이 아니라고 세뇌 교육을 받았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는 경우 사살해도 된다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탈북을 결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0년대 중반 심각한 기근을 겪었는데, 아버지가 지역 식량 부족 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누명을 씌웁니다. 어머니와 남동생, 여동생도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갔는데, 가족 구성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가족 전체가 구금되는 “연좌제”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제가 경비병으로 감시하던 정치범들이 불법으로 체포되어 구금됐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기 전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했습니다. 1994년 탈북했습니다.

어머니와 두 동생 행방은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인권 활동가로서의 여정, 그리고 엔케이워치를 설립하게 된 이야기를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하여 미국 상원에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1998 년 일이었고, 이를 시발점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이 이야기되기 시작했고 또한 미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인권법도 통과되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을 더 많이 알리고자 마음을 먹고, 정치범 수용소를 빠져 나온 생존자 및 가족과 함께 엔케이워치를 설립했습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중심으로 공개처형, 무자비한 고문 및 구타, 성폭력, 기근, 질병, 강제 노동을 비롯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인권 침해 문제를 전세계적으로 더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인권 침해를 기록하고 유엔 인권 실무그룹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계기가 무엇입니까?

엔케이워치는 2013 년부터 피해자를 대신하여 자의적 구금, 실종, 여성 차별, 아동권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 노동자 권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강제실종 실무그룹,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을 비롯한 여러 특별절차제도에 진정서를 보내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반인도범죄 혐의를 기록하려는 목적으로 진정서를 보내기 시작했고, 총 768 건의 진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답변서 40 여건, 중국으로부터 세 건 받았습시다. 인신매매나 강제 복송 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신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해결하려면 중국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기억하는 사례가 있으십니까?

2010년 일이 기억납니다. 온 가족 여덟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갔습니다. 한 명은 임신부였고요. 임신부를 별도로 격리해서 출산까지 기다렸다가 출산을 하고 100일 된 신생아를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이후 그 할머니와 고모가 탈북한 후 강제실종 실무그룹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북측에 남은 가족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위암도 앓고 있었습니다. 긴급으로 가족 생사를 알고 싶어서 강제실종 실무그룹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당 진정서에 언급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엔 인권 사무소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고 계십니까?

진정서 768건을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에 제공했고, 향후 분기마다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해당 기록을 잘 활용하여 피해자 기록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개별 비영리단체보다는 유엔이 국제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을 더 널리 알리고 당국에 압박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상황과 관련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유엔과 국제공동체 차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활동이 내부 상황을 일부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기여합니다. 가령 과거 정치범 수용소에서 구타가 심각했는데, 요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에 따르면 근래에 생계형 탈북에 대한 처벌은 구타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사실상 국제공동체와 유엔의 압박을 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두 곳이 해체됐고 과거에 비해 심문 과정이나 인권 유린 강도가 약해졌습니다.

책임 규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이 나아진다면 더 많은 피해자와 가족이 인권 침해에 대한 진술을 할 것이라 봅니다. 앞에 나서는 일이 덜 두려워질 것이기 때문이죠.

어려운 길이지만, 저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지사항: 본 기사에서 다루는 인물의 견해, 정보 및 의견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공식 정책이나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알립니다.

2021 년 1 월 4 일